

이재명 “광주, 글로벌 시도시·호남,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호남권 메가시티 등 공약 발표...“여수산단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산업화 과정 소외된 호남, 신성장 산업으로 경제부흥 확실히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를 글로벌 AI중심도시로 만들고, 여수산단의 석유화학·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개인 페이스북에서 호남지역 순회 경선(26일)을 앞두고 호남지역 메가시티를 실현해 호남 중심의 경제부흥을 이끌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내놨다.

또 호남권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미래전략을 토대로 기업들이 호남에 자리잡을 수 있는 비전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광역 지자체가 원하는 기존 핵심 공약에만 그치고, 과거 역대 정부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 등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호남지역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AI와 미래 모빌리티 중심산업, 전남에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전북에는 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약속했다.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여수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전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겼다.

호남권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신재생에

너지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전북과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도 공약으로 내놓고 전주의 하계 올림픽 전폭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혀 주겠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일대의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를 만드는 등 세계적 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새만금·전남·전북 일대에 RE100 산업단지 구축,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해남 유치, 나주에 한전과 에너지 공대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마련 등도 제시했다.

다만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방폐장 건설 등의 지역 현안이 있음에도 이번 에너지 공약에서는 원자력 발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를 방문해 1층 로비에 전시된 '나에게 민주주의는 000이다'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광주 5·18 영령들이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구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광주를 찾아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내란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광주가 빛고을이기 때문이다”라며 광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5·18을 상징하는 공간인 전일빌딩245에서 간담회를 열고 5·18 유족과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간 광주시민을 초대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지하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5·18민중항쟁 유족인 김길자(여·85)씨와 12·3 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대학생 박선우(23)씨와 시민 김승희(여·67)씨가 함께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역사가 지난해 12월 3일 밤 다시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죽은 자들, 광주의 영령들이 결국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다”며 5·18민중항쟁을 평가했다.

이어 “5·18은 촛불 혁명으로 발전했고, 이번에 빛의 혁명으로 완성됐다”며 “선결제 라는 걸 처음 본 순간, 광주의 주먹밥이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이 내란 사태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들에게서 나올 것”이라며 “광주는 그래서 위대하고, 그렇기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임기 시작 후 100일 내에 처리해야 될 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니면서도 차기 대통령이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내년 실시하는 지방선거 혹은 23대 총선때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이재명 후보 호남 공약 환영”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남 공약을 환영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기분 좋은 일”이라고 썼다. 이어 “광주가 ‘AI 중심 도시’가 되어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호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호남 부흥 공약과 비전이 담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호남을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썼다.

이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SOC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며 “호남 경제 부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도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호남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선 과제 발굴에 들어갔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체 제안한 주요 과제 대다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권 공약이 광주 산업의 양 날개인 AI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확고한 육성 의지를 보여줬다고 해석했다.

전남도 또한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해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제철산업의 전환 지원을 비롯해 지역 미래 먹거리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 후보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당 대선 경선 김동연·김경수 후보 호남서 광폭행보

간담회 열고 호남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연일 호남에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들에 따르면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전남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호남민심을 청취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당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벨트 RE100라인’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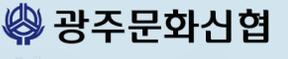
오후에는 장성군 황룡시장에서 지역민들을 만났다. 이후 광주 한국광(光)기술원으로 이동해 원장 및 연구원들자리를 갖고,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후보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대표 AI·미래 모빌리티 대기업도시로 조성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전남에도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국립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수 후보도 목포 동부시장에서 민심을 들었

다. 이후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당원과 간담회를 통해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등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경수 후보 배우자인 신안 출신 김경순씨도 이날 기아스포츠클럽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바자회에 참석하고 여성단체협의회도 방문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씨는 김씨 종친회를 찾아 지지를 부탁하고, 모교인 광주 살레시오여고 총동문회포럼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등 물밑 지원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